

## 중국 경제의 ‘뉴노멀’: 내용과 특징 그리고 대응 방안

전가림 (호서대학교 혁신융합학부 교수)

**중국의** 리오프닝 원년인 2023년 중국 경제는 여러 대내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정한 성장 동력을 유지했다. 그러나 수출과 투자 그리고 소비는 기대치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과도한 장기 방역정책과 부동산 문제, 소비 부진 및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 등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내재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 한계가 새로운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중국 경제의 회복세에 대한 의문과 우려는 글로벌 예측 기관들의 전망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2024년 상반기 중국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과 조치를 단행했고, 이로 인한 효과가 일부에서 미약하지만 가시화되고 있다. 상당수의 경기 부양책은 시장의 유동성 확대와 산업구조의 전환에 집중되어 있지만 과거에 시행했던 정책을 재차 단행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있다. 일부 정책은 과거, 단기적으로 실효적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오히려 중국 경제의 왜곡과 문제점을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관련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연속적이고 다양하게 전개되면서 각종 경제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대체로 일시적 효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중국 정부의 정책과 각종 지표에서 투명성과 신뢰성의 문제점들이 노출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의문과 우려는 여전히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중국 경제의 향방을 정확히 판단하고, 객관적이고 신중한 정책 수립과 대응 방안 모색이 요구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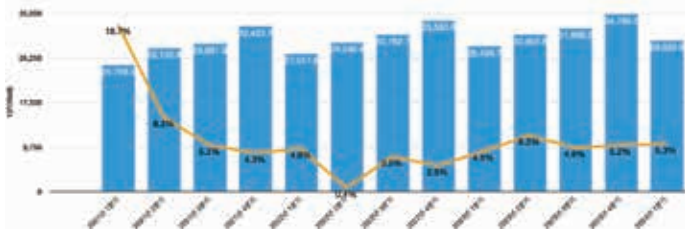
- I. 포스트 코로나와 중국 경제의 제반 특징
- II. 2023~2024 중국 경제 예측
- III. 2024년 상반기 중국경제 현황과 경제안정화정책 및 주요 조치
- IV.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응 전략
- V. 결론

2023년 3분기까지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하여 중국 경제가 안정될 조짐을 보였지만, 부동산 거품 위기는 여전히하고 고용과 가계 소득의 불확실성, 그리고 민간 기업의 신뢰 부진 등 불안정 요소 또한 여전히 존재함.

## I. 포스트 코로나와 중국경제의 제반 특징

- 중국의 리오프닝 원년인 2023년, 중국 경제는 여러 대내외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일정한 성장 동력을 유지하였음.
  - ▷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2023년 10월 18일, 3분기 GDP가 2022년 동기 대비 4.9% 성장했다고 발표하였음. 이는 시장 전망치<sup>1)</sup> 보다 높았지만, 2분기의 6.3% 보다는 낮았음(아래 그림 1 참조). 한편, 같은 기간 소비와 투자는 각각 6.8%, 3.1% 증가하였고, 수출은 5.7% 감소하였음.
    - 2023년 수출성장을 하락은 주로 글로벌 소비 동력 약화에 기인.
    - ▷ 2023년 3분기까지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5.2%를 기록하여 중국 경제가 안정될 조짐을 보였지만, 부동산 거품 위기는 여전히하고 고용과 가계소득의 불확실성, 그리고 민간기업의 신뢰 부진 등 불안정 요소 또한 여전히 존재함.
    - 성장 하방 리스크의 도전에 직면한 당국은 경기부양책을 내놨지만, 금리를 몇 차례 소폭 인하했을 뿐이고 실질적인 성과는 상당히 제한적<sup>2)</sup>.

[표 1] 분기별 중국 GDP 총액과 증가 추이



출처: 중국국가통계국의 자료를 필자가 년도와 분기별로 정리하여 작성.  
 중국국가통계국, <https://data.stats.gov.cn/search.htm?s=GDP>.

- 구매자관리지수(PMI)를<sup>3)</sup> 살펴볼 경우(아래 그림 2 참조), 중국의 제조업은 2022년부터 2024년 1분기까지 대부분 긴축 구간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음. 한편, 비제조업 전체 실적은 비교적 유동적이나, 서비스업 등 일부 산업에서는 일정한 성장 동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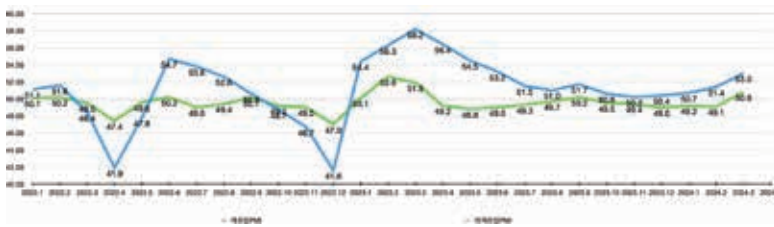
1) Peter Catterall, "China Saw Moderate Third-quarter Growth As Hurdles Persist: Survey," Barron's, October 16, 2023, <https://www.barrons.com/news/china-saw-moderate-third-quarter-growth-as-hurdles-persist-survey-d883883f>.

2) 중국 인민은행은 2024년 2월 5일 디플레이션 우려 속에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지급준비율(RRR, 기준율)을 0.5%p 인하했으며 같은달 20일에는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되는 5년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6개월만에 연 3.95%로 전격 인하한 바 있음.

3) 구매관리자지수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출하, 재고, 고용상태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설문 조사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업계 경기의 확장, 50% 이하는 업계 경기의 수축을 의미함.

- ▷ 2022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중국 제조업PMI와 비제조업PMI의 변화 추이를 볼 때, 제조업PMI는 2022년 3월과 10월부터 대략 3개월간 40선이 붕괴된 바 있음.
- ▷ 비제조업PMI는 2023년 2~3월에는 반등했지만 이후 다시 50 이상로 하락 하여 비제조업 대부분도 긴축구간에 있음을 증명.
- ▷ 2023년 제조업PMI는 대체로 50선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3월에 58.2를 기록한 후 11월 50.2로 계속 둔화되었지만 50선 하단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음.

[그림 2] 중국 구매자관리지수(PMI) 추이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https://www.stats.gov.cn/search/s?qt=PMI>의 각년도와 각분기별 자료를 필자가 정리 및 편집함.

- 중요 경제 지표에 따르면, 내수 소비는 미약하지만 일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는 업종과 대상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외무역 실적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쇠퇴 조짐을 보이고 있음<sup>4)</sup>.
  - ▷ 중국의 2023년 1~3분기 규모 이상의 공업<sup>5)</sup> 부가가치는 연 4.0%로 2022년 동기 대비 0.1%p 증가하였고, 사회소비재 소매는 연 6.8%로 2022년 동기 대비 6.1%p 증가하였음. 한편, 고정자산투자(농업 미포함)는 연 3.1% 증가했는데, 이는 2022년 동기 대비 2.8% 둔화한 것임.
  - ▷ 2023년 1~3분기 동안 국유기업의 투자는 연 7.2% 증가한 반면, 민간기업의 투자와 부동산 개발투자는 2022년 동기 대비 각각 연 0.6%와 9.1% 감소했음.

*중요 경제 지표에 따르면,  
내수 소비는 미약하지만  
일정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투자는 업종과  
대상에 따라 상당한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외무역 실적은 상대적으로  
뚜렷한 쇠퇴 조짐을 보이고  
있음.*

4) “2023年, 规模以上工业增加值同比增长4.6%——工业经济运行亮点纷呈,” 2024년 1월 20일, [https://www.gov.cn/lianbo/bumen/202401/content\\_6927180.htm](https://www.gov.cn/lianbo/bumen/202401/content_6927180.htm).

5) 중국에서 지칭하는 ‘규모이상의 공업기업’은 영업수입이 2,000만 CNY(이하 RMB)이상의 공업기업을 의미함.

주요 글로벌 예측기관들이  
전망한 '2023~2024년 중국  
경제 회고와 전망'을 보면,  
2024년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은 모두 2023년보다 낮은  
기대감(5% 이하)을 갖고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II. 2023~2024 중국 경제 예측

- 주요 글로벌 예측기관들이 전망한 '2023~2024년 중국 경제 회고와 전망'을 보면, 2024년 중국 경제의 성장 전망은 모두 2023년보다 낮은 기대감(5% 이하)을 갖고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아래 표 1 참조).
  - ▷ 11개 주요 글로벌 예측기관들이 2023년 10월 전망한 중국의 평균 경제성장 전망치는 4.95%로, 9월 전망치 5.0%보다 낮고, 5~8월 예상 전망치 5.18%보다도 낮은 수준임.
  - ▷ 2024년 평균 성장 전망치는 5%를 하회하고 있으며 2023년 9월과 10월에 제시된 전망치(4.45%, 4.56%)는 모두 이전에 전망되었던 4.69%보다 낮은 수준임.
  - ▷ 대부분의 글로벌 평가사들은 2023~2024년 중국 경제가 5% 이상의 성장을 실현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예측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더욱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2023년 경제 파동<sup>6)</sup>에 따라 주요 국제기구 및 글로벌 평가사들은 대체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함.
    - 중국 경제가 성장 잠재력과 조정 능력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내외부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임.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최근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춘 바 있음.

[표 3] 2023~2024년 글로벌 주요 기관의 중국 경제 성장 예측치(%)

기관	발표일	2023년 예측치	수정폭	2024년 예측치
S&P	2023/10/17	4.8	0	4.8
AFP	2023/10/16	4.9	-0.4	-
COMMERZ	2023/10/13	4.8	0	4.6
ING	2023/10/10	4.5	0	4.3
IMF	2023/10/10	5.0	-0.2	4.2
Bank of China	2023/10/8	5.2	-0.2	5.3
EIU	2023/10/5	5.2	0	4.8
HSBC	2023/10/4	4.9	-0.4	4.6
NOMURA	2023/10/4	4.8	0.2	3.9
Allianz	2023/10/4	5.3	0	4.7
World Bank	2023/10/1	5.1	-0.5	4.4
10월 예측치 평균		4.95	-	4.56
PIIE	2023/9/29	5.1	-0.4	4.5
BBVA	2023/9/27	4.8	-0.9	4.4
AMRO	2023/9/26	5.2	0	4.8

6) 코로나 시기 전세계는 금리 인하(양적완화)로 경기를 부양했고,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이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양적긴축)이 단행되었다. 특히 미국은 경기 침체기 경기 회복을 위해 썼던 각종 완화정책과 과잉 공급된 유동성을 경제에 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서서히 거둬들이는 고금리 전략(tapering)을 취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불황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팬데믹에 따른 공급망 붕괴와 함께 트럼프가 GDP의 20%를 웃도는 '문지마식(武) 현금 살포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결과였다. 그 해법은 공급망을 회복하려는 노력과 포퓰리즘 현금 살포 정책의 중단임에도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는 가파른 금리 인상을 지속했다.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은 고금리, 고물가, 자본유출 부담 등이 가중됐다. 개도국들의 통화가치는 폭락했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출이 본격화된 것이다. Fed의 행보는 다른 나라의 경제를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근린국핍화정책'로 나타나면서 세계경제는 경기 침체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었다.

Standard Chartered	2023/9/21	5.4	0	4.8
ADB	2023/9/20	4.9	-0.1	4.5
OECD	2023/9/19	5.1	-0.3	4.6
ANZ	2023/9/18	5.1	0.2	4.2
IHS Markit	2023/9/15	5.0	-0.2	4.6
DBS	2023/9/8	5.0	0	4.5
Schroders	2023/9/7	4.8	-1.7	4.3
Danske	2023/9/6	4.8	-0.4	4.2
NBC	2023/9/5	4.8	-0.4	4.5
Moodys	2023/9/3	5.0	0	4.0
9월 예측치 평균		5.0	-	4.45
UBS	2023/8/21	4.8	-0.4	4.2
Morgan Stanley	2023/8/17	4.7	-0.3	4.2
KPMG	2023/8/9	5.5	-0.2	5.2
BOA	2023/7/20	5.1	-0.6	4.8
Goldman Sachs	2023/7/19	5.4	0	4.5
Natixis	2023/7/19	5.0	-0.5	4.5
UN DESA	2023/6/7	5.4	0.1	5.1
Bloomberg	2023/5/26	5.5	-0.3	5.0
9월 이전 예측치 평균		5.18	-	4.69

■ 중국 경제에 대한 주요기관 별 평가:

- ▷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과 높은 부채,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양질의 경제 발전을 위해 구조개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였음.
- ▷ 유엔경제사회국(UN DESA)는 2023년 5월 16일에 발표한 “세계 경제 상황과 전망 (업데이트)”<sup>7)</sup>에서 중국의 도시실업률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높다고 보고하면서 2024년 GDP성장률이 4.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 글로벌 통화정책 긴축과 지정학적 긴장,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제약 등을 근거로 제시.
  - 중국은 불충분한 소비자 수요, 낮은 투자, 부채 위험 및 에너지 전환을 포함한 구조적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
- ▷ 세계은행(World Bank)은 2023년 중국 경제가 5.1% 성장으로 전망했지만, 소매판매 부진과 집값 하락,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 민간부분 투자 및 용자 감소 등 여러 경제 지표의 악세를 지적하였음.
  - 부동산 시장의 취약성과 지방채무 부담이 완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8%에서 4.4%로 하향 조정.
  - 중국 경제의 장기 도전 요인으로 높은 부채 위험과 인구 고령화 지적.
- ▷ OECD는 지난해 11월, 2023년 5.1%와 2024년 4.6%로 제시한 중국 경제 전망치를 6월 전망치보다 각각 0.3%p, 0.5%p 하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 OECD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도전 요인으로 고용시장의 암울한 전망, 부동산 업계의 과도한 금융 레버리지, 국내 소비 수요 약화 등을 지적하면서, 글로벌 경기둔화로 인한 수출증가세 감소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평가.

7) UN ECOSOC,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23,” January 2023, <https://desapublications.un.org/publications/world-economic-situation-and-prospects-2023>.

### Ⅲ. 2024년 상반기 중국경제 현황과 경제안정화정책 및 주요 조치

- 2023년 중국경제는 내외부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4.9%, 5.2%의 GDP성장률을 기록, 중국 경제가 미미한 수준에서 전년 동기 대비 회복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 바 있음.
  - ▷ 이는 중국 정부가 2023년에 제시한 내수확대, 민간기업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경제안정화 정책(조치)' 채택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됨.
  - 그러나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지 않음.
  - 각종 부양책은 시장의 기대치보다 대체로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시장의 반응은 미온적이거나 일시적임을 증시가 이를 방증함.
  - ▷ '중국 경제 정점론(Peak China)'은 아직 불식되지 않았으며 중국 경제를 회의적으로 보는 여러 근거가 상존함.
  - 중국인민은행은 최근 CNY(이하 RMB) 환율 하락을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역외시장에서도 RMB의 평가절하가 빠르게 진행 중.
  - 2024년 1분기 GDP성장률은 예상치(4.8%)보다 높은 5.3%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나, 1분기 산업생산은 4.5% 증가해 예상치인 5.5%에 크게 못미침.
  - \* 그 결과, 2024년 1분기 경제성장률(5.3%)에 대한 불신 가중.
  - 소매 판매 역시 1분기 3.1%로 예상치(4.5%)보다 크게 낮아 환율절하를 통한 수출 확대 의도로 해석됨.
  
- 2024년 들어 중국경제는 각종 지표에서 호조를 보이며 1분기에 이어 2분기에 도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나타내며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 중임.
  - ▷ 2024년 1~4월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동기 대비 역대 최다를 기록함.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24년 1~4월까지 중국의 수출입 규모는 동기 대비 5.7% 증가.
  - 상품 수출입 총액은 13조 8,100억RMB로 5.7% 증가, 그 중 수출과 수입은 각각 4.9%, 6.8% 증가.
  - \* 중국 정부의 강제적 수출 확대 조치로 판단하는 시각도 있음.
  - 2024년 1~4월 중국의 철도부문 고정자산 투자도 대폭 증가(투자액 1,849억 RMB)하여 동기 대비 10.5% 증가.
  - \* 이는 중국 국가철도그룹(國鐵集團)이 2024년 들어 철도부문의 투자 유도효과를 제고 하기 위해 철도망 보완 및 연계를 중심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확대한 결과로 판단됨.
  -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개월(2024년 1~3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제조업도 미약하지만 회복세를 보임.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4년 4월 CPI는 동기 대비 0.3% 상승해 기존 전망치를 상회했다고 발표함. 단 지속 여부는 아직 단언하기 힘들.
  - 금년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50.4로 전월보다 0.4%p하락했으나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확장 국면에 대한 기대감은 미약하지만 지속됨.

- 중국의 거시경제 흐름이 개선 여지를 보이자 골드만삭스, ADB, IMF,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기관의 중국 경제성장률 전망도 상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함.
- 지난 4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동기 대비 2.5% 감소, 디플레이션 우려를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며, M1(협외통화) 잔액도 동기대비 1.4% 감소.
- 사회용자총액<sup>8)</sup>은 2024년 4월 사상 처음으로 전월 대비 하락, 2017년 사회용자총액 통계를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4월부터 중국 정부는 소비와 부동산 시장을 재생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 ▷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과 생산 설비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과 주택 매입 규제 폐지 등으로 내수 확장에 나서고 있음.
- 과거에도 시행했던 '이구환신'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기부양 효과를 가져왔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 왜곡(가격, 경쟁구도, 소비주기 등)의 부작용을 낳았음.
- 여러 경제 지표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는 있지만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 회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시장 상황이 호전되는지 여부와 CPI가 정상적 수준(2%)으로 회복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함.

■ 2024년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부동산 거품, 부채 리스크, 미·중관계의 긴장 등 주요 불확실성으로부터 탈피하기 힘들 것으로 평가됨.

- ▷ 성장 전망은 대체로 보수적 평가가 지속될 전망이다. AI, 5G, 반도체 및 기타 과학 기술 분야에서 자주적 혁신과 발전 강화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23년 9월부터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sup>9)</sup> 제고가 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
- ▷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 국제무역 분쟁, 인구 고령화, 부동산 문제, 높은 부채와 소비 부진 등과 같은 국내외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 상황이 경제의 큰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2024년 1분기 중국의 부동산 개발 투자 규모는 동기 대비 9.5% 감소하였고, 5월 중순 발표된 월간 부동산 개발 및 판매 지수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2024년 4월부터 중국 정부는 소비와 부동산 시장을 재생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기존에 사용하던 가전과 생산 설비를 새 것으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과 주택 매입 규제 폐지 등으로 내수 확장에 나서고 있음.*

*2024년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부동산 거품, 부채 리스크, 미·중관계의 긴장 등 주요 불확실성으로부터 탈피하기 힘들 것으로 평가됨.*

8) 사회용자총액은 은행 대출을 비롯해 채권 및 주식 발행 등을 모두 포함하는 지표로 유동성 공급 총량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임.

9) '신질생산력'은 시진핑이 2023년 9월 중국 동북부 흑룡강을 시찰할 때 제시한 것으로, 새로운 발전 이념에 부합하는 선진 생산력의 질적 상대라 해석함. 2024년 2월 "과학기술 혁신은 새로운 산업, 새로운 모델, 새로운 동력을 낳을 수 있고 새로운 생산력 발전의 핵심 요소"라 지적하며, 새로운 슬로건을 통해 미래 성장에 주력해야 함을 강조함. 중국 경제는 현재 낮은 소비자 신뢰와 산재한 부동산 위기,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중국이 이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임. 베이징 당국은 '신질생산력'이 미국과 서구의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 또는 '디리스크(de-risking, 위험경감)' 조치로 인한 서방세계의 압력에 맞서 중국의 실력 강화를 전제하고 있음. 현재 중국 경제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내수확대이지만 리창(李強) 총리의 업무보고에서 내수확대와 관련한 조치의 중요성은 '신질생산력' 제고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음. 최근 중국은 '신질생산력'을 국방, 공간 부문에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 안정을 통한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함.

*중국 리오픈링(re-opening)에 따른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위기 요인들이 표면화됨.*

*과거 중국 경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부동산 정책과 인프라확충 등 조치(부양책)들이 한계상황(한계비용체증)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

*지난 2023년 7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는 상반기 경제 상황을 요약하고 2023년 하반기 경제사업의 초점을 결정하면서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함.*

→ IMF는 중국의 취약한 부동산 산업이 아시아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의 하방 국면이 계속될 경우 수요 약화에 따른 지속적인 디플레이션 가능성 증가를 지적.

▷ 중국 경제는 리오픈링(re-opening)에 따른 기대감에 부합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위기 요인들이 표면화됨.

→ 과거 중국 경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했던 부동산 정책과 인프라확충 등 조치(부양책)들이 한계상황(한계비용체증)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

→ 기존의 경기부양책들이 무력화되면서 중국경제의 도전요인은 더욱 복잡하고 다방면에서 문제점들을 노출.

→ 경제불균형, 제도적 불확실성, 고정자산 투자의 정체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중진국함정론(middle income trap)” 대두.

▷ 미·중관계 긴장 고조, 국제분쟁(전쟁) 등을 포함한 외부적 도전에 직면하면서 ‘국가안보(安全)’의 개념이 확대되기 시작함.

→ 국가정책에서 사회경제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가안보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리오픈링’ 과정에서 ‘경제(기)회복’이 국가안보의 핵심 현안으로 평가됨.

■ 지난 2023년 7월 2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는 상반기 경제 상황을 요약하고 2023년 하반기 경제사업의 초점을 결정하면서 ‘경제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함.

▷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회복세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내수, 기업 운영의 어려움 및 외부 환경의 변화와 같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함.

▷ [내수와 민간기업, 부동산 부분] 중국 정부는 내수, 특히 소비와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위기와 금융환경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택이 적기에 인도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 조정을 결정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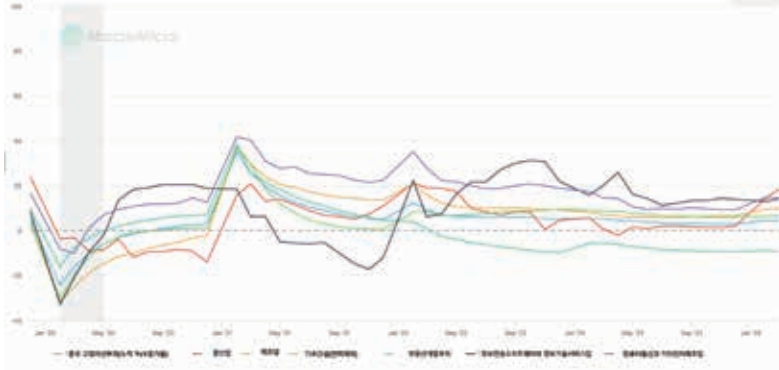
▷ [환율-수출, 고용 부분] RMB 환율 안정(역내 환율: 수출증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 병행)과 융자비용 절감 등 금융환경의 안정, 고용안정(특히 청년고용 우선 확보, 실업 문제 지원) 및 외수부진 등에 대비해 대외무역 규모와 구조 안정화를 위해 관세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함.

→ 대외적으로 시장 개방 확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관세를 인하하며, (수출부진 타개책으로)인접국과의 무역 확대를 우선 고려함.

## IV.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과 대응 전략

### 1. 부동산 시장 거품의 영향

[그림 4] 중국의 업종별 고정자산 투자 추이(2019.12.~2024.3.)



출처: MacroMicro(財政M平方)  
<https://sc.macromicro.me/charts/327/cn-china-investment-actually-completed-comparison>.

■ 중국의 부동산 투자는 2022년 2분기부터 역성장으로 돌아선 뒤 2023년 10월에는 -9.3%까지 기록했고,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태임.

▷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타 국가들보다 높으며, GDP에서 부동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4.1%에서 2020년 7.3%로 증가했고, 부동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관련 산업사슬까지 포함하면 20%를 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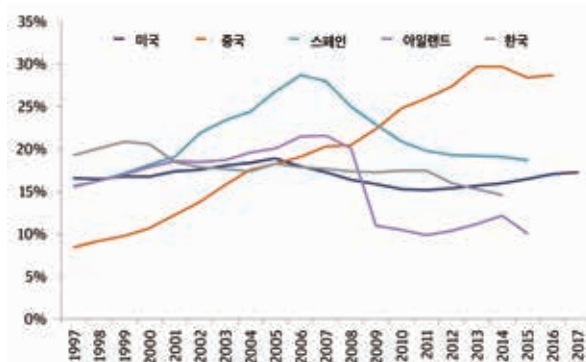
→ J.P.Morgan의 자료<sup>10)</sup>에 의하면,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 비중은 30%에 이르며, 기타 국가들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아래 그림 4 참조).

▷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심각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어 중국 경제에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심각한 상황이며 대부분의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어 중국 경제에 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10) “了解中国房地产市场之下行走势及影响,” 2023년 8월 24일.  
<https://privatebank.jpmorgan.com/apac/cn/insights/markets-and-investing/understanding-chinas-property-downturn-and-its-implications>.

[그림 5] 중국의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주요국과의 비교



출처: Kenneth Rogoff & Yuanchen Yang, “中國的住房建設見頂了嗎?(Has China’s Housing Production Peaked?)”, 「中國與世界經濟」, 第21期 第1號, 2021年, pp. 1~31.

■ 중국 가계의 부(富)와 은행 자산은 대부분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가계 소비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

▷ 2023년 8월 말 이후 중국은 처음으로 주택대출인 ‘주택담보대출’과 ‘주택대출 최저 계약금 비용 조정’ 등 최적화 조치(認房不認貸)를 발표해 시장 신뢰를 제고하고 부동산 기업의 경영 전망을 개선하려는 조치 단행하였음.

→ 인방불인대(認房不認貸): 2023년 8월 광저우(廣州)와 선전(深圳)에서 시행한 부동산 대출완화 정책, 주택 구매자가 대출 기록 유무와 상관없이 구매자 명의의 주택이 없으면 첫 주택 구매로 간주하는 정책, 이전에는 무주택자여도 대출 기록이 있으면 첫 주택 구매로 간주하지 않았음.

→ 중국 1선도시 중 광저우가 가장 먼저 부동산 대출완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는 중국 주택도시건설부, 중국인민은행, 금융관리감독총국에서 개발표한 <개인 주택 대출 주택수 인정 기준 최적화 통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을 말해줌.

## 2. 채무위기

중국의 부채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부채는 금융시스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음.

■ 중국의 부채 수준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지방정부와 기업 부채는 금융시스템의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음.

▷ 2023년 말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잔액은 40조7,400억RMB로 일반채무 약 15조8,700억RMB, 특별채무는 약 24조8,700억RMB<sup>11)</sup>을 기록했으나, 정부의 법정부채비율은 56.1%로 신흥시장보다 낮은 수준이라 평가함.

11) “两会中国经济问答 | 中国如何防范化解地方债务风险?——两会中国经济问答之三,” 2024년 3월 7일 <http://www.news.cn/politics/20240307/4b80b2d56336427f807f8023094043a3/c.html>.

- 2022년 말 현재,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잔액은 일반채무 14조4,000억RMB, 특별채무 20조7,000억RMB 등 35조1,000억RMB를 기록, 2017년부터 연평균 16.3%씩 성장해 GDP성장률 7.8%를 넘어선 수준.
- ▷ 2022년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부동산 시장 침체 및 토지 거래 부진으로 인해 지방 재정 수입이 감소해 지방부채의 신용 위험이 크게 증가함.
- ▷ 2023년 1~8월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은 연간 4.2% 증가했으며, 지방정부 투자 수단(LGIVs. local government investment vehicles)으로 발행한 도시투자건설 사채(城投債)는 1~3분기까지 연평균 15.3% 증가하는 등 지방채 증가세가 지속됨.
- 2023년 1~12월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 규모는 신규채권과 재융자채권 합산 9조3,374억RMB 수준<sup>12)</sup>.
- 2024년 양회(兩會)에서 발표한 경기부양책은 △내수확대 전략 실행, △소비와 투자를 조정해 경제성장 견인, △새로운 유형의 소비(전기차, 전자제품 등) 육성을 통해 디지털·친환경 소비 촉진, △부동산 정책 최적화와 합리적인 자금 조달 요구를 차별없이 지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목표는 3%,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출산 지원책 개선, △구형 소비재와 설비의 신제품 교체(以舊換新) 정책 발표 등 제시<sup>13)</sup>.

■ 중국 당국은 부채비율이 여전히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 정부부채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sup>14)</sup>의 지속적인 확장은 금융시스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

- ▷ 공식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숨은 채무는 대체로 만기가 짧고 금리가 높으며 상환 출처가 불확실한 경우가 다수(최근 악성부채화하는 경향)임.
- ▷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불이행(default)에 이르면 금융기관의 막대한 손실, 대규모 예금인출사태(Bank run)와 금융위기,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 금융시스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음.

12) “財政部:2023年全国发行地方政府債券93374亿元,” 2024년 1월 30일, <https://news.cnstock.com/news,bwxx-202401-5184358.htm>.

13) 2023년 12월 11~12일 진행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2024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에 대해 안정적인 경제정책 추진과 고품질 경제발전을 강조, 구체적인 중점 추진 사항으로 ① 기술혁신을 통한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 ② 내수 확대 ③ 핵심 분야의 개혁 심화 ④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 확대 ⑤ 경제·금융리스크 관리 및 예방, ⑥ 3농 사업의 지속 추진 ⑦ 도·농통합과 지역협력발전 추진 ⑧ 생태문명 건설과 녹색·저탄소 발전 추진 ⑨ 민생안정 및 개선 등을 언급함.

14) 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이나 비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금융활동으로 은행과 달리 정부의 통제와 감독에서 벗어나 있고,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금융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

2023년 글로벌 경제 정세는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 미·중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 중이며, 특히 미·중 간 무역과 기술전쟁에 관련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현재 중국은 AI, 5G, 반도체 및 기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주적 혁신과 발전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원동력(신질생산력)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2024년 중국은 양회를 통해 '신삼양(新三樣: 태양광패널(전지), 이차전지, 전기차)'을 에너지안보와 신산업 육성의 결합으로 연계하고 있음.

### 3. 미·중 무역과 과학기술 분야의 분쟁

■ 2023년 글로벌 경제 정세는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 미·중 관계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 중이며, 특히 미·중 간 무역과 기술전쟁에 관련한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

- ▷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은 2019년 말 양국이 1단계 무역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 상황임.
- ▷ 미·중관계가 긴장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재건을 위해 일부 생산 라인을 중국으로부터 이전하기 시작함(reshoring, Friend-Shoring).
- ▷ 미국은 우방국과 연계한 탈중국 혹은 탈동조화(decoupling) 전략을 계속 추진 중이며, 2022년 도입된 'IRA'와 '반도체법'은 모두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에 불리한 상황임.
- ▷ 중국에 대한 미국의 기술 이전과 투자 제한, 중국 하이테크기업에 대한 제재는 양국 간의 기술 마찰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파생된 디스플레이 수출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중.
- ▷ 미국의 중국계 기업에 대한 투자 심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중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및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중국은 AI, 5G, 반도체 및 기타 과학기술 분야에서 자주적 혁신과 발전을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주요 원동력(신질생산력)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

- ▷ 중국은 상기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신에너지, 전기자동차, 바이오테크놀로지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려 함.
- ▷ 2024년 중국은 양회를 통해 '신삼양(新三樣: 태양광패널(전지), 이차전지, 전기차)'을 에너지안보와 신산업 육성과의 결합으로 연계하고 있음.
  - 중국의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전기차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각각 90%, 60%, 50%에 이르나, 중국의 GDP에서의 비중과 경제발전 공헌도는 아직 낮은 수준(대략 8% 정도).
  - 중국은 과거 의류, 가구, 가전 등 소위 '노삼양(老三樣)'의 대량 수출에서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전기차 위주의 '신삼양'으로의 수출 구조 및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2023년 중국 수출 중 '신삼양'은 30% 증가했으나 총수출 중 비중은 4.4%로 중국 경제에서 아직 미미한 수준, 이는 내수 부진에 따른 원인이 크며 대외무역구조의 최적화와 산업 고도화의 속도가 더딘 점도 있음<sup>15)</sup>.
  - '구삼양'은 국제자본과 수주 등으로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세계

15) “中国“新三样”能够救经济吗?” 2024년 6월 24일, <https://www.voachinese.com/a/china-new-trio-economy-20240319/7533579.html>.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구삼양' 분야의 대량 실직으로 아직 충분한 시장과 수요, 일자리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

- '신삼양'의 생산성이 향상되면 중국 경제의 장기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 투자뿐만 아니라, 민간 투자가 작용하는지의 여부가 관건, 다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는 긍정적.

#### 4. 중국의 경제 정책과 지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

■ 중국의 각종 경제 정책과 지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었던 문제이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신뢰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임.

- ▷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리오프닝 기간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총액은 7조RMB 감소했으나 국가통계국은 고정자산투자 성장률이 3% 증가 한 것으로 발표함.
- 해외 기관들은 고정자산투자에 있어 10% 이상, GDP의 3대 구성요소인 수출, 투자, 소비 등에서 대략 7% 정도의 왜곡과 조작이 있는 것으로 추정.
- 통계에 대한 왜곡과 조작은 2020년부터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고, 최근 국가안보 관련 계(대외관계법, 반간첩법, 국가기밀보호법 등)의 확대 적용으로 인해 통계 데이터 접근성이 차단됨에 따라 통계 신뢰성과 공신도가 크게 손상된 것으로 파악됨.
- ▷ 전기생산과 소비량의 불일치로 중국 경제 및 통계에 대한 의문이 가중됨.
- 2023년 1~11월 중국의 전기사용량은 83,679억Kwh인 반면 발전량은 80,732억 Kwh를 기록 약 3,000억Kwh의 차이를 보임<sup>16)</sup>.
- ▷ 또한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식품품 가격(특히 돼지고기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중국 당국의 설명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며, 리오프닝 이후 중국은 통화긴축과 디플레이션이 확산 및 심화된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됨.
- 경제적 관점과 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리오프닝 과정에서 심리적 만족감과 해방감으로 인해 소비증가가 나타나며, 특히 식음료 소비 증가가 일반적 현상, 이는 경제회복의 중요한 동력으로 평가됨.
- 2022년 말부터 2024년 4월까지 물가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동기간 CPI 역시 마이너스를 기록했음.
- ▷ 인민은행의 투명성, 독립성 그리고 공신력의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음.
- 2023년 9월 시진핑의 인민은행 방문 과정에서 각종 경제정책의 운영에 대해 공개적 지시, 또한 인민은행장의 인사 단행 등은 중앙은행에 대한 독립성 훼손 사례.
- 2023년 9월 인민은행은 시장 유동성 확대를 통해 경기부양의 의지를 강조하며 기준율을 0.25%p 인하 발표(중국 금융권 평균 기준율 7.4% 유지 명시), 2024년 1월 1조 RMB의 유동성 공급과 2월 5일 경기회복 기반의 공고화를 명분으로 기준율 0.5%p

*중국의 각종 경제 정책과 지표에 대한 신뢰성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었던 문제이지만, 경기 부양을 위한 절박한 상황에서 신뢰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임.*

16) 국가통계국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전기사용량의 계상 과정에서 전기 소비 대상 및 기준의 차이로 야기된 문제라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상황은 공개하지 않음.  
“用电量和发电量不一致? 国家统计局回应!” 2024년 1월 17일,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자료 공개에 대해 빗장을 걸고 있어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경제 데이터를 국가안보로 인식하고 관련한 부분에 대해 비공개, 경직적 정책을 취한 까닭임.

디지털 경제의 해외 확장 전략과 경제무역 정책의 실효적 성과를 위해 중국은 '정상외교'를 적극 활용 중.

'일대일로' 전략과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의 연계를 통한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information port, 일종의 무역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주력함.

전격 인하 단행했으나 인민은행 홈페이지에는 금융권 평균 기준율을 7.0%로 명기<sup>17)</sup>.  
\* 이는 시장불안감 증가와 경기 회복 심리 훼손 및 경제운영(정책) 실패 자인을 우려한 조치로 판단되는데, 금융권에서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시장 반응의 탈동조화', '통계 자료 공개 지연' 및 '중앙-지방 정책과 통계 불일치' 등의 현상들이 나타남.

- ▷ 최근 중국 정부는 경제자료 공개에 대해 빗장을 걸고 있어 투자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경제데이터를 국가안보로 인식하고 관련한 부분에 대해 비공개, 경직적 정책을 취한 까닭임.
- 중국 시장에 투자했던 투자자와 업체에 타격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 싱크탱크의 중국 경제 연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
- 최근 시진핑은 공개 석상에서 중국 투자 증대를 강조하고 있으나, '안부 우선'을 이유로 시장정보의 접근성을 차단하고 있는 상황.

### 5. 공세적 외교의 전개

■ 디지털 경제의 해외 확장 전략과 경제무역 정책의 실효적 성과를 위해 중국은 '정상외교'를 적극 활용 중.

- ▷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 21일까지 시진핑은 40개 국가와 47건의 양자 <공동성명>을 발표했고, 이를 대외경제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이용하고 있음.
- 중국의 의도는 미-중 전략 경쟁과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외교적 고립감, 즉 'Cold peace' 탈피를 위해 적극적인 대외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음.
- 동 기간 29건의 양자 <공동성명>에서 상대국의 농산품과 에너지 수입 확대; 34건의 양자 <공동성명>에서 '디지털 경제'를 명시하여 <글로벌 디지털 안전 선언>을 통한 글로벌 디지털 거버넌스 규칙 제정의 기초 마련; 13건의 양자 <공동성명>에서 '금융 협력'을 제의해 RMB의 초국경적 지불시스템 및 보험, 자산관리 등을 포함시킴; 25건의 양자 <공동성명>에서 '동반자 관계'와 '운명공동체' 언급.

■ '일대일로' 전략과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의 연계를 통한 정보 네트워크 플랫폼(information port, 일종의 무역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주력함.

- ▷ AI, 5G, Big data, 블록체인 등을 기초로 한 초국경전자상거래와 원격의료 등 디지털 협력 경제체 구축에 노력함.
- 이를 '신질생산력'의 대외적 확장으로 인식함.
- ▷ 이와 관련해 '강제적 국가표준('중국표준 2035')' 구축에도 주력 중이며, 이는 국제 디지털 경제의 표준 설정권 확보를 위함인 동시에 주도권 선점을 위한 포석으로 평가됨(2023년 1분기 현재 중국은 935개의 강제적 국가표준을 설정했음).
- 2021년 10월 중국 국무원은 <국가표준화발전강요> 발표, 국가표준 제정 주기를 18

17) “中国人民银行：我国法定存款准备金率仍有下降空间，” 2024년 3월 21일.  
<http://www.news.cn/fortune/20240321/85dffaceab7c4d82aa0dd83176bc48fb/c.html>.

개월로 단축하고 2025년까지 과학기술표준전환비율과 국제표준전환율을 각각 50%와 85%까지 실현할 것을 공식화함.

→ 국가표준을 투자유치, 해외진출과 연계하며 플랫폼 구축의 일환으로 상정하고 있음.

▷ 2015년부터 중국 국무원은 '초국경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를 지속적으로 확대 건설하고 있음.

→ 2016년 텐진(天津), 상하이(上海), 충칭(重慶) 등 12개 도시 추가; 2018~20년 92개 도시로 확대, 2022년 60개 도시 추가 지정; 2023년말 현재 165개 도시가 초국경적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로 지정된 상태.

■ 제조업 생산 대국과 수출 대국('세계의 공장')의 지위를 활용한 RMB 국제화에도 주력하고 있음.

▷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중국 인민은행은 다양한 국가들과 <화폐청산협약(Currency Clearing Agreement)>를 적극적으로 체결(라오스,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모리셔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했으며, 식량과 철광석 및 에너지 수급에서도 RMB 결제를 적극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음(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러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RMB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유럽 및 남미 등 100개 국가에서 무역 결제로 사용.

→ 최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에서 RMB의 비중은 4.5%로 확대되었으나 아직 USD(83.71%)에 비해 미미한 수준.

## V. 결론

■ 2023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2%(전년 대비 2.2%p 상승) 달성했으나, 2024년에는 다양한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하였으며, 대부분의 예측기관은 이를 반영하여 약 4.5%로 하향 전망함.

■ 중국의 경제성장은 미·중의 지정학적 긴장과 부동산 거품화에 의해 장기간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특히 선진 경제체의 높은 인플레이션, 공급망 디커플링과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의 폐쇄적 정책 등으로 인해 중국의 대외무역 및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분기 GDP성장률은 5.3%로 2023년 3분기 4.9%, 4분기의 5.2%와 같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는데,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해 내수소비와 제조업이 모두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 의지가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음.

▷ 중국 국무원은 최근 경제상황에서 내수와 국내투자 확대에 정책적 초점을 맞추고 있음. 일각에서는 중국이 달성한 1분기 경제성적표가 새해 들어 추진한 경기 부양과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4년 1분기 GDP성장률은 5.3%로 2023년 3분기 4.9%, 4분기의 5.2%와 같이 시장의 예상을 상회했는데, 관계 당국은 이에 대해 내수소비와 제조업이 모두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비 의지가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음.*

- 소비 촉진을 위한 각종 정책의 효과라고 평가함.
- 국제신용평가사와 기관들은 1분기 경제성장은 광범위한 제조업 성과, 준절(구정) 연휴에 따른 가계 지출 증가, 투자 촉진 정책에 의해 뒷받침되었다는 시각이 다수 (각종 부양책+유동성 공급 등 효과)
- 3월 수출 부진(-7.5%)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 수요 상황은 여전히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 중국 경제를 낙관하기 이르다는 반응.

■ 2024년 1분기 중국의 수출입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무역흑자는 지속해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sup>18)</sup>.

- ▷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자료(2024. 1. 12.)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4.6%, 5.5% 하락했고, 교역총액은 전년 대비 5% 감소한 5조9,368억 USD(수출 3조3,800억USD; 수입 2조5,568억USD) 기록함.
- (수출) 2023년 집적회로(-10.1%), 완구(-12.2%), 의류(-7.8%), 신발(-12.6%) 등 전통 품목의 수출액이 두자릿수 감소폭을 기록한 반면 자동차(69%), 선박(28.6%) 등 고부가가치 품목은 높은 신장세를 시현해 전체 수출 하락세를 방어함.
- '신삼양' 수출규모가 1조RMB를 돌파해 수출구조 고도화 추세 반영, 향후 관련한 수출 규모는 점증할 것으로 예상(2023년 중국의 수출 총액은 23조7,7725억RMB).
- (수입) 농산물, 에너지 수입이 두자릿수 증가세를 보인 반면 기계전자류 수입은 마이너스 기록.
- \* 금액기준: 식용유 16.3%, 석탄 24.1%, 정제유 42.3%, 자동데이터 처리기기 -10.7%, 집적회로 -15.4%, 액정패널 모듈 -21% 등 기록.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사회안전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와 기업 부채문제는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의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과 사회안전 시스템을 위협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와 기업 부채문제는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은 2010년부터 노동자들의 총소득이 급증하면서 2010~2011년 전후 시점에 '루이스 전환점(Lewisian turning point)'을 통과했다는 평가.
- \* 2013년 11월에 열린 제18기 중앙위원회 3중전회에서 투자 중심의 경제체제를 소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전략과 함께 소득분배 합리화, 사회보장제도 강화를 강조한 것 등이 근거.
- 중국의 '그림자 금융'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GDP대비 63.4%)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 대부분이 부동산인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음.
- \* 2020년 헝다(恆達)그룹 파산과 2023년 자산관리사 중즈(中資)그룹 파산이 대표적 사례.

18) 2024년 1분기 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수입은 -1.9%,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를 기록했는데, 특히 외국인직접투자는 2023년 7월 이후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함. 2024년 1분기 중국의 무역수지는 585억5천억USD로 흑자를 달성했지만 전월 대비 -66.61% 감소했음.

■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수 시장은 계속해서 중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 경제 회복정책이 실효화하거나 국가의 각종 ‘안전’ 조치들(반간첩법, 대외관계법, 국가기밀법 등)이 가속화하여 성장 지향적인 행동을 대체하거나 민간 부문의 투자 신뢰에 영향을 끼친다면 경제 동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된 환경 보호와 ‘탄소 배출’ 문제에 대응해 중국이 산업 구조조정에 적극 나서면서 새로운 무역 마찰이 발생할 전망이다.

▷ 중국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신에너지, 환경 보호 기술 및 순환 경제 분야에서 찾고 있으며, 이를 독립적인 과학 기술 혁신에 도움이 되고 과학 기술에 대한 외부 의존도 감소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세계 경제의 패턴 변화와 함께 신흥시장의 중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외 수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녹색 과학 기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선진국들이 국내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도입함에 따라 서방세계와 중국 간 긴장관계는 더욱 심화할 전망.

■ 미국을 위요한 선진국들이 중국에 대해 무역장벽을 높이면 무역 갈등은 빈번해 질 것이고, 중국은 핵심 원자재 수출 제한 등과 같은 보복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sup>19)</sup>.

■ 최근 중국은 대외경제정책에 대한 공세적·확장적 전략 심화(upgrade)를 집중 논의하고 있어 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sup>20)</sup> 특히 RMB국제화(무역 결제, RMB청산협의 등)와 초국가적 전자상무(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강제적 국가표준(중국표준 2035) 적용,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 등을 ‘신질생산력’의 대외적 확장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이 요구됨.

■ 중국 경제가 불러 온 ‘뉴노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

▷ 중국의 정책과 통계 데이터에 대한 현실과의 부합성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기제 (다각화된 경로: 민관 트랙 교류를 통한 자료 수집과 조사 및 분석 등) 필요함.

▷ 조작·왜곡된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한 중국 정책 당국의 정책이 야기할 문제점 관찰과 분석 필요함.

→ 조작·왜곡된 자료에 따른 정책 오류와 실패 가능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동시에

*중산층이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내수 시장은 계속해서 중국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나, 중국 경제 회복정책이 실효화하거나 국가의 각종 ‘안전’ 조치들(반간첩법, 대외관계법, 국가기밀법 등)이 가속화하여 성장 지향적인 행동을 대체하거나 민간 부문의 투자 신뢰에 영향을 끼친다면 경제 동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음.*

*중국 경제가 불러 온 ‘뉴노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

19) 관련 자료는 EIU, “Risk outlook 2024: Ten Critical Risk Scenarios facing the Global Economy,”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24.

20) 필자가 다양한 경로(중앙정책연구실, 중국국무원, 외교부 등)로 취득한 정보임.

시의적 대응 및 관련 부처와 주체(정부-기업-민간) 간 유기적 협력 필요.

- ▷ 중국의 공세적, 확장적 대외경제전략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대한 추이 파악과 분석 및 대응 필요함.
- 최근 중국의 디플레이션 수출과 자원 무기화 및 경제. 무역보복에 대한 사전 경보 시스템과 대응 방안(제도) 마련 필요.
- 디지털 무역 패턴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 ❖ 저자 약력

##### ■ 전가림

북경대학 국제관계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취득. 전공분야는 중국대외관계, 동북아 국제정치, 중국의 부패문제. 저서로는 『미·중 전략경쟁 내 중국 탄소중립 대외전략과 시사점』(2022, 공저), 『현대중국정치의 분석과 전망』(2020), 『제국의 미래: 중국의 정치·경제 및 사회·외교』(2011, 공저), 『동아시아의 문화전통과 21세기』(2004, 공저), 『21세기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2003, 공저) 등. 현재 합동참모본부 자문위원, KBS 국제방송 <시사포커스> 진행자, 홍콩<봉황위성>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며, 과거 <서울신문> 필진, KIEP CSF 칼럼리스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방부 국방정책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음.

기획 및 감수: 박동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실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3546)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22

**E-mail:** [jpi@jpi.or.kr](mailto:jpi@jpi.or.kr) **http://**[www.jpi.or.kr](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